

01 교회소식

은혜와 사랑에 감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성령 충만 기도회와 신학교 졸업식, 2022 우수상 시상식, 2023 만민문화아카데미 개강 등 교회소식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상대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은 강하고 확실하게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켜 변화시킬 수 있다.

03 기획특집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을 주장하는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모습은 질서를 좇지 않는 것, 사심과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내 것을 더 중요시하는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

04 간증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환자 기도를 받은 뒤 결핵성 입파선염과 공황장애, 성대 결절은 물론 성령의 불이 입해 양팔 통증을 치료받는 등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988호 2023년 3월 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중부지방회 주최 ‘이복님 원장 초청 성령 충만 기도회’



지난 2월 23일 오후 8시, 예수교연합성결회 중부지방회 주최 ‘성령 충만 기도회’가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을 강사로 대전만민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집회는 중부지방회 회장 정철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소속 교회인 대전, 천안, 청주, 서산, 공주, 아산, 춘천, 사랑만민교회 등에서 참석하였다.

강사 이복님 원장은 설교를 통해 “누군가를 불편해하

거나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며, 내가 변화되어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스럽게 여길 때라야 상대도 변화될 수 있다는 영계의 법칙을 깨달아 풍성한 사랑을 이룰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찬양과 기도 시간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며 기도해 줌으로 참석자들은 자신을 발견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현장!

## 은사집회

인도: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일시: 2023년 3월 24일(금) 오후 11시  
 (준비찬양: 오후 10시 40분)  
 생중계 홈페이지: manmin.org

치료와 응답을 위한  
**작정 다니엘 철야**  
 3월 6일(월)~3월 26일(주일)  
 오후 9시~11시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 인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 제31회 연합성결신학교 및 제16회 MIS(만민국제신학교) 졸업식



지난 2월 16일 오후 2시, 제31회 연합성결신학교 및 제16회 MIS(만민국제신학교) 졸업식이 있었다.

연합성결신학교 교수 김진홍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졸업식은 교수 빈금선 권사의 대표기도, 서승원 집사의 특송 후 교장 문신현 목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자’(잠

16:2~3)라는 말씀으로 설교했다.

그 뒤 사회자의 학사 보고, 졸업증서 수여, 이사장 상패 수여, 졸업생 대표 감사의 글 낭독, 축도, 폐회 순으로 이어졌다. 올해 MIS(만민국제신학교)에서는 러시아, 몰도바, 아르메니아에서 졸업생들이 나왔다.

### 2022년 우수상 시상식

지난 2월 26일 주일 저녁예배 시 ‘2022년 각 부문 우수상 시상식’이 있었다. 수상자들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 안에서 충성되게 감당하여 교세 부흥을 이루었거나 각 분야에서 공적을 인정받은 일꾼들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총 23명이 우수 지역장·조장·구역



장과 우수 선교회 조장, 우수 기관장과 부장, 봉사대, 상근 직원, 봉사자 등의 부문 대표자로 수상했다.

### 제1기 만민문화아카데미 개강

오는 3월 11일, 전 성도의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위해 설립된 ‘만민문화아카데미’가 개강한다. 2023년 제1기는 보컬, 기타, 무용, 사진, 꽃꽂이 강좌를 시작으로 5월 12일까지 주 1회 총 10주간 진행된다.

보컬(찬양, 노래)	서승원 집사	토 오후 1:00	/ 스튜디오
기타	강태희 집사	토 오후 3:00	/ 만민카페
무용	서경애 권사	토 오후 5:00	/ 사택 예배실
사진	유송영 장로	월 오후 6:30	/ 3층 회의실
꽃꽂이(수채화)	이현주 집사	금 오후 6:30	/ 3층 회의실



#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8)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랑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아무 죄 없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인들의 허다한 허물까지도 덮어 줄 수 있는 사랑을 소유해야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허다한 허물을 덮어 줄 수 있는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상대의 허물을 덮어 준다는 말씀의 의미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허물은 그릇된 실수나 잘못을 의미하며, 영적으로는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질이 행함으로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할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를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둑질을 했을 때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죄를 덮어 주는 것보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 주는 일은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다한 허물을 덮어 주는 것은 단순히 상대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오래 참음 가운데 그가 어떻게든 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며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되지요.

설령 상대의 허물을 덮어 주는 것이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덮어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허다한 허물을 덮어 줄 수 있는 사랑 역시 오래 참음이 기초가 되어서 상대가 온전해질 것을 바라보고 다가오는 모든 고통을 견디며 참아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능히 이같이 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마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의 가운데 이루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겨 나가는 것이 참된 선이지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상대의 실수나 단점을 드러내

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덮어 줄까, 그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며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대의 흠과 티를 드러내거나 없는 허물을 만들어 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버리고 상대의 허물까지도 덮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 2. 허다한 허물을 덮어 주는 사랑을 이루려면

### 1) 상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가만히 꿀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그녀를 돌로 쳐 죽이도록 내놓을 일이었지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가만히 꿇고자 합니다. 마리아에게 그런 허물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죽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선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음을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 알려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마 1:20).

우리는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깨달아 그렇게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발견된다면 먼저 당사자를 찾아가 사랑으로 권면해 주는 것이 선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두 번 잘못을 저질렀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버리겠다.” 하신다면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지요? 또한 상대방에게 어떤 허물이나 죄가 있다고 해서 용서치 않는다면 화평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형제 사이에는 다투어 허물을 드러냄으로 불의한 자가 되느니 차라리 누명을 쓰는 편이 낫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골 3:13~14).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악을 행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 굴에 던져 받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았기에

얼마든지 악한 자들의 음모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묵묵히 공의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봉하시므로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살아나와 이방 나라의 임금과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였지요. 오히려 다니엘을 계략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자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 해도 상대를 용서하고 참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과 용서, 인내와 오래 참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 2) 상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 허물을 덮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두 형제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이를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장막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 보지 않았지요(창 9:23). 이처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그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으며, 설령 확연히 드러나는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치 자신의 허물인 것처럼 민망히 여깁니다.

흠과 점과 티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용서를 베풀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으며 영혼들의 아픈 곳을 싸매 주셨습니다. 죄인의 허물을 보면 덮어 주시며 돌이켜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지요. 허물며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그렇다면 허물을 덮어 주라 하니 무조건 허물을 덮어 주는 것이 옳을까요? 허물은 곧 죄요, 죄의 삶은 사망이므로 허물 탓에 상대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모른 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 허물의 경중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랑의 권면이나 훈계, 책망 등 알맞은 방법으로 상대를 바른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들보를 다 빼낸 사람만이 남의 티를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해도 사랑을 가지고 권면이나 책망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에게 양약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기꺼이 덮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참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을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길이고, 또한 그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 했으니(약 5:19~20) 이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 상대가 진리로 변화되도록

사랑으로 이끌어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 주고 이해해 주는 차원을 넘어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심으로 생

명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썩어질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하는 생명이고, 영으로 살리는 생명을 말합니다. 또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찬란한 빛을 비춰 주는 생명이지요.

예를 들어, 허물 많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앞으로 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을 때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버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요 13:37 ; 눅 22:33). 그런데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지요(요 13:38). 결국 예수님께서 잡히신 곳까지 따라갔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말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눅 22:54-62).

또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떠올렸지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하리라” 등 자신이 주를 부인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당부의 말씀만 해 주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장차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데 대한 자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더한 죄 가운데로 빠져들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베드로를 구해 내신 것입니다.

이미 지은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물론, 더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 허물을 덮어 주는 사랑이지요. 이는 예수님께서서 허다한 허물을 덮어 주는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으로서 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 이러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 줄 수 있는 사랑은 강하고 확실하게 상대의 마음을 감동케 하며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을 고집하거나 주장하는 ‘자기 의’

자기 의에는 하나님 뜻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세상적인 의가 있는가 하면, 진리를 바탕으로 만든 자기적인 의가 있습니다. 자기적인 의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진리를 많이 알고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닌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내기도 하니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자신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며, 자기 생각과 행동이 옳다고 여깁니다. 이처럼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대부분 화평을 깨뜨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의로 인해 틈타는 교만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 ‘자기 의’로 인해 틈타는 교만을 경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쌓아놓고 명심해 이루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틈타입니다. 그래서 늘 주변에서 하는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안다는 생각 속에,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주변에서 아니라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보고 기도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제삼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분별이 되는데도, 막상 자신이 그 입장이 되면 옳다 하는 자기 의 가운데 행동하니 자신의 교만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자기 의’의 모습

### ‘질서를 좇지 않는 것’

혹여 사모함이나 영적인 것을 침노한다는 이유로 질서를 깨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서에 따라 정확하게 세워졌기에 질서를 좇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 경험이 많은데, 더 능력 있는

데.’ 한다면 질서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설령 윗사람이 자신보다 못하다 해도 중심에서 섬기고 순종할 때 어찌하면 윗사람을 도와 하나님 일을 더 잘 이룰까 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고 협력해 선을 이루 주십니다.

### ‘사심’과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주 안에서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지 결코 자기 자랑이나 명예,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적이 돌아가고 칭찬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이룰 수만 있다

면 기꺼이 양보하고 내어줄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공적이 드러나야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이 사심이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 ‘내 것’을 더 중요시하는 마음

내 가족, 내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내게 속한 것 등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추려 하니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지도 못하고 이해하거나 용서하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상대의 것’을 먼저 생각해 주었는지 돌아보며 상대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상대가 우하면 나는 좌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결핵성 임파선염을 치료받았습니다”

장복남 집사 (56세, 3가나안선교회)

2022년 3월경, 왼쪽 귀 밑에 화농이 생기더니 진물이 나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개인병원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진받으니 ‘결핵성 임

파선염’이라며 당장 수술할 것을 권했습니다. 저는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개인병원에서 검사한 자료와 CT 촬영 결과를 보여드리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임파선염 20개 중 1개가 터져 이 상처를 수술해야 하고 나머지 19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독한 약을 먹으며 치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이 매우 독해 검은색 변이 나오고, 나이가 있으니 암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제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저는 임파선염으로 인해 쉽게 피로가 왔고 심할 때는 기절한 것처럼 쓰러져 쉬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믿음으로 치료받아야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때 제 상태는 오른쪽에도 임파선염 1개가 생겼고, 왼쪽은 포도송이처럼 부풀어 올랐으며 임파선염 1개가 더 화농이 생겨 터지기 직전이어서 왼쪽은 이전 것과 함께 2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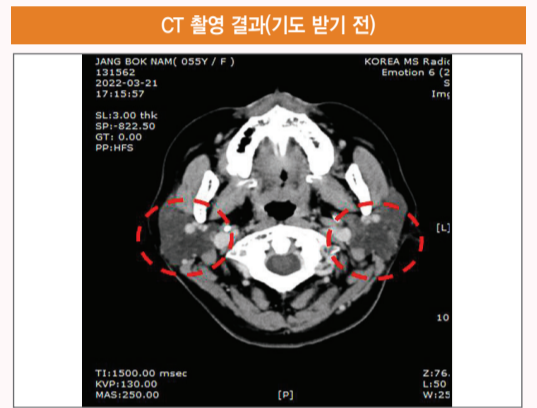
2022년 11월 은사 집회를 앞두고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TV와 유튜브 시청에 마음을 빼앗기는 등 부족했던 모습들이 떠올라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행치 않았던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1월 25일, 은사 집회에 드러진 금요철야예배에 GCN방송으로 참석해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주관 받았던 성전 건축 헌금 100만 원도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결핵성 임파선염 증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강을 되찾아 직장생활은 물론 학생 주교사 연

합회장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2018년에는 공황장애를, 2022년에는 30년 된 성대 결절을 치료받았고, 2023년 2월에는 무안단물에 받을 담근 뒤 심한 각질과 함께 갈라져 피나던 발바닥이 깨끗해졌지요.

이처럼 제 삶에 늘 함께하시며 치료해 주셔서 크신 사랑을 느끼며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양측 경부 림프절염이 보임.



## “일상을 괴롭혔던 양팔의 통증을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모니카 이게라 성도 (41세, 콜롬비아만민교회)



2021년 12월부터 저는 양팔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들거나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는 뼈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였지요.

설거지나 청소 등 집안일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고 별로 무겁지 않은 것을 들 때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양팔의 통증으로 인해 어떤 일을 하든 불편했고,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2022년 1월, 저는 믿음으로 치료받자 은사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치료받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3월에 있을 다음 은사 집회 때는 꼭 치료받아야겠다는 마음에 콜롬비아만민교회 21일 특별 다니엘 철야에 참석하며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제게 많은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졌고, 1월 은사 집회 때 환자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들을 놓고 마음 다해 회개하며 3월 은사 집회 때는 꼭 접수하고 치료받자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2022년 3월, 은사 집회 당일이 되어 저는 콜롬비아만민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은사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드디어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제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는데, 특히 두 팔과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이후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받은 뒤 모든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나 침대 정리 등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움이 없었고 통증도 전혀 없었지요. 할렐루야!

그날 오후,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은사 집회 시에 기도 받고 치료받았다고 말했더니 딸들과 함께 너무나 기뻐 하였습니다. 그동안 제 고통을 지켜왔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체험을 통해 저는 마음 다해 준비하고 사모하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어방동1099-2 J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림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광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전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로로 129 향야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릉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